



2021년 12월 28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월 28일(화) 오전 10시 40분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2. 27.(월)	담당부서	전력산업정책과
담당과장	강감찬 과장(044-203-3880)	담당자	조민웅 사무관(044-203-3887)

## 호남화력발전소, 반세기 전력 공급 마치고 퇴역

-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17~'21) 국정과제 완료 -
-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 -

□ 국내 현존 최고령 석탄발전소인 호남화력발전소가 반세기 동안 전력 공급 역할을 마치고, '21.12.31일 24시부로 퇴역한다.

○ '17년 이후 노후 석탄발전 8기를 폐지\*했으며, 호남화력발전(#1·2)을 포함하여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하게 되었다.

\* 서천#1·2, 영동#1('17.7월) / 영동#2('19.1월) / 보령#1·2('20.12월) / 삼천포#1·2('21.4월)

\*\* 국정과제('17.8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中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 반영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28일(화) 여수 호남화력발전본부에서 열린 「호남화력발전소 퇴역식」에 참석하여 석탄발전 폐지·감축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자 노고를 격려했다.

※ 별첨 :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방향」

###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1. 12. 28.(화) 10:40~12:00 /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본부
- (참석자) 산업부 장관, 지역구 국회의원,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의장, 동서발전 사장, 동서발전 및 협력사 임직원, 지역 주민 등
- (주요내용) 호남화력 부지 활용 계획 및 인력 재배치 계획 점검, 관계자 격려

□ 호남화력발전소는 '73년 유류발전소로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오일 쇼크 이후 '85년 석탄발전소로 전환되었다.

- 전력이 부족했던 '73년 준공 당시부터 48년 간 여수산단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국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왔으나,
- 최근 탄소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사업자의 폐지 의향을 바탕으로 폐지가 결정\*\* 되었다.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16.6월) : 노후 석탄발전 10기의 친환경적 처리(폐지, 연료전환 등)

\*\* 산업부 발전5사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16.7월) :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방안 논의 및 폐지 결정

□ 한편, 현재의 호남화력 부지는 최신 LNG복합 및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설되어 친환경 발전사업단지로 전환될 예정이다.

\* 여수그린에너지 LNG열병합발전('25년~), 연료전지('26년~), 新호남 LNG복합발전('29년~)  
↳ 동서발전과 에스제이에너지산업이 공동사업개발협약(JDA) 체결

- 또한 호남화력 인력 320명 중 290명은 다른 석탄발전 및 LNG발전 등으로 재배치되거나, 자산정리 업무 등을 위해 잔류할 계획이다.

\* 근무 인력 320명 中 290명 잔류 및 재배치, 10명 정년퇴직, 20명 계약 종료

□ 문 장관은 호남화력발전의 공헌과 발전사 및 협력사 임직원의 헌신, 그리고 지역 사회의 성원에 경의와 감사를 표했다.

- 특히, 호남화력이 친환경 발전단지로 변모하여 지역경제와 국가 전력수급에 계속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호남화력 퇴역은 마침표가 아니라 이음표임을 강조했다.

- 또한, 노·사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인력이 재배치된 것을 높게 평가하며, 정부도 석탄발전 감축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문 장관은 호남화력 퇴역식 행사 종료 후, 한국전력이 시공한 광양 복합-신여수 송전선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
- 문 장관은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과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설비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행사 개요, 호남화력발전 개요, 산업부 장관 致詞

**【별첨】**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방향」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조민웅 사무관(☎ 044-203-38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

- 호남화력 폐지로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완료
  - \* [既폐지] 서천#1·2, 영동#1('17.7월) / 영동#2('19.1월) / 보령#1·2('20.12월) / 삼천포#1·2('21.4월)
- 48년간 운영된 호남화력의 명예로운 퇴역 기념 및 관계자 노고 격려
-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 제시
  - \* (인력) 호남화력 인력 320명 中 잔류 및 재배치 290명, 정년퇴직 10명, 계약종료 20명
  - \* (지역경제) 호남화력 부지는 LNG발전, 연료전지 등 탄소중립을 향한 사업부지로 활용 계획

**2. 행사개요**

- (일시/장소) '21.12.28(화), 10:40~12:00 / 호남화력발전본부(여수시)
- (참석자) 산업부 장관, 지역구 국회의원, 여수시장, 동서발전 사장, 한전 전력그리드 부사장, 동서발전 및 협력사 임직원, 지역주민 등

**3. 주요 행사 내용**

일시	내용	비고
10:40~10:45 (5')	개회선언, 내빈소개	사회자
10:45~10:48 (3')	인사말	동서발전
10:48~10:55 (7')	호남화력 연혁, 기여, 경과 소개	영상
10:55~11:05 (10')	호남화력 부지 활용계획 및 인력 재배치 현황보고	동서발전
11:05~11:10 (5')	여수그린 공동사업개발협약(동서-SJE 間 JDA) 서명	동서발전,SJE
11:10~11:13 (3')	치사	산업부 장관
11:13~11:25 (12')	기념사(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11:25~11:35 (10')	호남화력 폐지 의미 상징화 세레머니	
11:35~11:40 (5')	폐회선언 및 기념촬영	

□ 설비개요 : 유연탄 500MW (250MW x 2)

○ 위치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203

○ 부지 : 495,722 m<sup>2</sup> (약 15만평)

\* 본부지 4.1만평, 회처리장 10.9만평

○ 총 발전량('73~'21년) : 145.2 TWh

□ 연혁 : '73년 준공 이래 48년간 운전

○ '73.4월 : 민자 호남전력(주) 상업운전

○ '73.9월 : 호남전력(주) → 한국전력 인수

○ '85.3월 : 연료전환(중유→유연탄) 개조

○ '99.7월 : 1차 수명연장('98년→'10년) 공사 준공

○ '01.4월 :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한국동서발전(주) 발족

○ '11.3월 : 2차 수명연장('11년→'20년) 공사 준공

○ '16.7월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노후석탄발전 10기 폐지결정

○ '20.12월 : 여수 송전선로 건설 상황에 따른 폐지 연기('20.12월→'21.12월)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주철현 국회의원님과 권오봉 여수시 시장님,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님,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님과  
협력사 임직원,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오늘 호남화력발전소 퇴역식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호남화력발전소는 전력이 부족했던  
'73년에 준공한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에너지 역사를 함께했습니다.

유류발전소로 처음 준공 되었으나,  
오일쇼크로 인한 연료전환 필요성에 따라  
'85년에는 석탄발전소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 GDP는 약 20배 증가했고,  
여수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로 성장했습니다.

\* GDP(실질) : '73년 98.2조원 → '20년 1836.9조원

호남화력발전소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무엇보다 호남화력발전이  
쉽 없이 불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밤낮없이 땀 흘리셨던  
발전사와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지역사회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여수 시민과 전력 관계자 여러분!

호남화력발전의 연료가 유류에서 석탄으로 전환했듯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도 연료수급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60년대 연탄파동 이후 유류발전을 확대했고,  
'70년대 오일쇼크 이후에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중심으로  
공업화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는 다시 한 번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곡점에 와있습니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혁신의 성공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 新시장 규모가  
'30년까지 1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영향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까지 살필 계획입니다.

먼저, 석탄발전이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저탄소,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겠습니다.

석탄발전 일자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물론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송·배전분야,  
수소·암모니아 발전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석탄발전 부지는  
친환경 발전단지,  
새로운 산업단지 등으로 재활용하여  
계속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급격한 지역경제 위축 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되도록 하여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호남화력발전소는 소임을 다하고  
오는 12월 31일 퇴역합니다.

호남화력발전소는 누군가의 설레는 첫 직장이고,  
누군가의 청춘을 함께한 추억이며,  
누군가의 가계를 책임지는 삶의 터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호남화력발전소 퇴역은  
마침표가 아니라 이음표입니다.

현재 발전소 부지에 몇 년 후면, 연료전지와 함께  
금일 체결된 공동사업개발협약에 따른  
최신 LNG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어,  
친환경 발전사업단지가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호남화력발전이  
다시 뛰는 여수의 심장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수시와 지역 주민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곧 2022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